

**2026년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DICM)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선정평가 결과**

'2026년 두바이국제콘텐츠마켓(DICM)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총 7인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23개 기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위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숏폼 플랫폼, 콘텐츠 IP, 투자,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튀르키예, 북아프리카(MENA) 등 중동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다각도로 심사함.  
참가기업의 콘텐츠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수출 전략 및 사업 수행 역량, 비즈매칭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

금번 참가기업들은 숏폼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영화,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AI 기반 콘텐츠 플랫폼,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 콘텐츠 IP를 활용한 글로벌 유통과 포맷 수출, 공동제작,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다만 상당수 기업이 중동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면서도 현지 방송사, OTT, 배급사 등 주요 바이어의 수요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비즈니스 미팅 대상 또한 일반적인 기업명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판단됨. 또한 계약 목표액 산정 근거,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현지화 전략,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에는 중동 지역 방송·OTT 시장의 편성 트렌드와 콘텐츠 소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별 핵심 바이어와의 협업 모델, 라이선스 및 공동제작 구조, 후속 계약 추진 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콘텐츠 경쟁력뿐 아니라 실제 수출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활용 방안과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함께 강화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성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